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서영숙, 정추영* 강복희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Young-sook Seo, Chu-young Jeong*, Bok-Hee Ka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Received October 30, 2019; Revised November 15, 2019; Accepted November 28, 2019)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were 184 nursing students recruited from one college located in D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the PASW 21.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indicate that nursing students have level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at are higher than the median.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plans for academic performance, major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personal relations. Nursing professionalism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Conclus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predicting greater nursing professionalism. Thus,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 program for enha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Academic perform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Students, Personal relations.

*Corresponding author : jcy0902@dhc.ac.k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의료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명 연장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간호교육계에서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¹⁾²⁾. 간호학의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간호수행능력 등 간호역량은 간호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³⁾⁴⁾. 이에 간호학과 교육 프로그램은 간호사로서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직의 소명을 가지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하는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의미한다⁵⁾⁶⁾⁷⁾. 특히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정립은 간호업무 현장에서 갈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간호실무 발전을 위해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⁸⁾. 한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지식과 태도 및 간호수행 경험학습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호전문직관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게 된다⁹⁾¹⁰⁾.

많은 선행연구¹¹⁾¹²⁾¹³⁾에서 간호사의 전문직관은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됨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알아보고, 간호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을 확인하여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변수로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 간호학과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05월 01일에서 30일까지이며,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 목적과 의의, 익명성 보장 및 설문에 참여하지 않음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5%, 효과크기 .15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72명 이상 요구되었으며, 불충분한 응답수와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자료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8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학점, 진학동기,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대인관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2.3.2.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¹⁴⁾이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를 Han¹⁵⁾이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1 문항으로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 6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 9문항,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 7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문항(6, 9) 두 문항은 점수를 역환산 처리 하였다. Han¹⁵⁾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87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¹⁶⁾이 개발한 29문항을 Kim¹⁷⁾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¹⁷⁾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였으며, 본 연구에서 .82 이었다.

2.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PASW 21.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증은 scheffe-test로 분석

하였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서 여성이 82.6%(152명), 평균 연령은 만20~22세가 63%(116명), 학년은 3학년이 71.7%(132명), 학점은 3.6~3.9가 46.2%(85명), 종교는 무교가 56.5%(104명), 간호학과 진학 동기는 취업 42.9%(79명), 간호학과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43.5%(80명), 건강상태는 '좋다' 42.4%(78명), 성격은 '긍정적' 44.0%(74명), 대인관계는 '좋다'라고 응답자한 대상자가 57.6%(106명)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점(F=4.840, p=.001), 전공만족도(F=4.224, p=.001), 성격(F=2.494, p=.045), 대인관계(F=3.274, p=.04)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검증 결과, 학점은 '4.0이상'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성격은 '긍정적, 매우 긍정적' 대인관계는 '매우 좋은 편'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간호전문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만족도 정도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이 63.32점(±7.43), 평균평점이 3.52점(±0.48)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간호의 독자성 3.90점(±1.02), 전문직 자아개념 3.73점(±0.57), 간호계의 역할 3.68점(±0.72) 사회적 인식 3.24점(±0.66), 간호의 전문성 3.20점(±0.54)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평균이 98.66점(±13.22), 평균평점은 3.18점(±0.46)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실습교과만족도가 3.49점(±0.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환

경 3.32점(±0.84), 실습평가 3.17점(±0.74), 실습 습내용 3.04점(±0.6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시간 3.11점(±0.63), 실습지도 3.10점(±0.75), 실

Table 1.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subjects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84)

Variable	Categories	N(%)	t or F	p	scheffe
Gender	Women	152(82.6)	0.76	.450	
	Man	32(17.4)			
Age	20-22	116(63)	0.89	.414	
	23-25	52(28.3)			
	26<	16(8.7)			
Grade	3	132(71.7)	0.50	.625	
	4	52(28.3)			
School record	<3.0a	23(12.5)	4.84	.001	a<b,c<d
	3.0~3.5b	47(25.5)			
	3.6~3.9c	85(46.2)			
	4.0<d	29(15.8)			
Religion	Catholic	8(4.3)	0.87	.504	
	Christian	37(20.1)			
	Buddhism	31(16.8)			
	None	104(56.5)			
	Etc.	4(2.2)			
Entering motivation	In aptitude	41(22.3)	0.33	.896	
	The recommendation of family & relative	39(21.2)			
	Employment guarantee	79(42.9)			
	To the grade	13(7.1)			
	To serve others	4(2.2)			
	Etc.	8(4.3)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a	12(6.5)	4.223	.001	e,d<c<a,b
	Satisfied ^b	74(40.2)			
	Mid-level ^c	80(43.5)			
	Dissatisfaction ^d	13(7.1)			
	Very dissatisfaction ^e	5(2.7)			
Health condition	Very good	28(15.2)	2.053	.089	
	Good	78(42.4)			
	Mid-level	64(34.8)			
	Bad	12(6.5)			
	Very bad	2(1.1)			
Character	Very positive ^a	23(12.5)	2.493	.045	e<b,c<a,d
	positive ^b	81(44.0)			
	Mid-level ^c	74(40.2)			
	Negative ^d	5(2.7)			
	Very negative ^e	1(0.5)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a	-	3.273	.040	c<b<a
	Good ^b	21(11.4)			
	Mid-level ^c	106(57.6)			
	Bad ^d	57(31.0)			
	Very bad ^e	-			

Table 2. Degre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subjects (N=184)

Variable	M±SD	Average M±S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98.66±13.22	3.18±0.46
Satisfaction with course of clinical practice	10.48±1.74	3.49±0.67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18.23±3.05	3.04±0.64
Satisfaction with guidance of clinical practice	27.86±4.96	3.10±0.75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23.26±4.05	3.32±0.84
Satisfaction with time of clinical practice	9.30±2.21	3.11±0.63
Satisfaction with estimation of clinical practice	9.52±1.94	3.17±0.74
Nursing professionalism	63.32±7.43	3.52±0.48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22.35±3.06	3.73±0.57
Social recognition	16.20±3.36	3.24±0.66
Nursing expertise	9.59±1.22	3.20±0.54
Role of the nursing	7.36±1.37	3.68±0.72
Autonomy of nursing	7.80±1.84	3.90±1.02

3.3.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r=.42, p<.001$)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실습교과만족($r=.28, p<.001$), 실습내용만족($r=.37, p<.001$), 실습지도만족($r=.37, p<.001$), 실습환경만족($r=.37, p<.001$), 실습평가만족($r=.37,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실습시간만족($r=.19, p=.009$)과는 미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alism (N=184)

Variable	Nursing professionalism
	r(p)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42 (<.001)
Satisfaction with course of clinical practice	.28 (<.001)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37 (<.001)
Satisfaction with guidance of clinical practice	.29 (<.001)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38 (<.001)
Satisfaction with time of clinical practice	.19 (.009)
Satisfaction with estimation of clinical practice	.24 (.001)

3.4.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80이상인 변수가 없어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는 .80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는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전문직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학점, 전공만족도, 성격, 대인관계 등 각각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변수를 투입한 결과, 실습환경만족($\beta=.235$)이었고, 실습내용만족($\beta=.230$), 학점($\beta=.15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5.2%였다($F=4.24, p=.001$)(Table 4).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subjects (N=184)

Variable	β	t	p
Constant	.587	2.847	.003*
Satisfaction with course of clinical practice	.011	0.134	.894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230	2.696	.008**
Satisfaction with guidance of clinical practice	.079	0.908	.365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235	2.806	.006**
Satisfaction with estimation of clinical practice	.107	1.321	.188
School record	.155	2.147	.033*

Adjusted R²=25.2, F=4.24 p<.001

* p<.05, ** p<.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 평점이 3.18±0.46(척도범위:1-5)으로 중간 정도였다. 이는 Lee와 Ha¹⁸⁾의 연구결과(3.54점)와, Ham 등¹⁰⁾의 연구결과(3.43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Ji⁵⁾의 연구결과(3.04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임상실습경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1학기 이상 경험한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Lee와 Ha¹⁸⁾의 연구에서는 1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Ham 등¹⁰⁾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마친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Ji⁵⁾의 연구에서는 3년제 간호학과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학년 및 임상실습경험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하위 영역에서는 실습교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습환경, 실습평가, 실습시간, 실습지도, 실습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Ji⁵⁾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Lim과 Jo¹⁹⁾ 연구에서도 실습교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실습내용, 실습평가,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지도만족도 순으로 나타나 실습내용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실습지도 영역은 상기 연구 모두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와 Ha¹⁸⁾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시 수행과 관찰의 비율, 임상실습지도자의 지도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지도영역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이 63.32점(±7.43), 평균평점이 3.52점(±0.48)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간호의 독자성 3.90점(±1.02), 전문직 자아개념 3.73점(±0.57), 간호계의 역할 3.68점(±0.72)

사회적 인식 3.24점(± 0.66), 간호의 전문성 3.20점(± 0.54)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평점이 3.52 ± 0.48 (척도범위:1-5)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o와 Kim²⁰⁾의 연구에서 3.67점, 임상실습을 600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과 Jo¹⁹⁾의 연구에서 4.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Ham 등¹⁰⁾의 연구결과 3.4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시간의 정도나 학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에서는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계의 역할,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am 등¹⁰⁾의 연구에서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Lim과 Jo¹⁹⁾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은 학년이나 실습경험에 따라 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의 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인식이 공통적으로 낮은 순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서 학점, 전공만족도, 성격,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격과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Kim⁷⁾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⁷⁾⁸⁾¹⁹⁾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한편 성격, 대인관계를 변수로 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제 특성과 관련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6개 하위영역에서도 미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¹⁰⁾¹⁹⁾에서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실습환경만족, 실습내용만족과 학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5.2%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 600시간이상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과 Jo¹⁹⁾의 연구에서 실습교과만족, 실습환경만족과 성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m 등¹⁰⁾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임상실습교과만족을 높이기 위해 이론적 지식을 실습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현장과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임상실습 현장은 대상자 권리보호 등과 관련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호행위의 제한으로 습득해야 할 경험들이 이론 또는 관찰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된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제적인 간호수행을 적용하여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 실습교육의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실습내용의 대부분이 단순한 기능적인 업무를 반복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문제중심 학습과 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사례연구 및 임상간호를 현장지도자의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방안을 확대하여 임상실습내용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상

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 연령, 학년, 종교, 간호학과 진학동기, 건강상태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점과 전공만족도, 성격, 대인관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학점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학점을 높게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만큼 전문 지식과 간호술기를 익힘으로써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실습교과만족, 실습내용만족, 실습지도만족, 실습환경만족, 실습평가만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실습시간만족과는 관계가 없었다. 실습내용과 실습지도, 실습환경 등이 잘 준비되었을 때 간호전문직관을 긍정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실습환경만족, 실습내용만족, 학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일 대학 간호학과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지역과 대학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임상실습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검증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Ha NS, Choi M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5;11(1):13-21.
2. Song JH. Study on clinical education of nursing in hospital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3):251-264.
3. Cho HS.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2007;32(2):57-72.
4. Waldner MH, Olson JK.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2007;4(1):1-14.
5. Ji EM.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3.
6. Yoon HK.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3;19(5):658-667.
7. Lee EK, Kim OH. Comparison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by gend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15(4):2135-2148.
8. Jang TJ.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14.

9. Lee SR.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1.
10. Ham YS, Kim HS, Cho IS, Lim JY,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1;17(3):538-54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536>
11. Oh DJ, Choi CJ, Kwon BE, Park YH.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64-72.
12. Ham YH, Shon IS, Park KO, Kang KH.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0;16(2)17-31.
13. Kim GB, Kim HS, Lee KH, Clinical nurses' professional conflic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1;31(3):492-505.
14. Cho KJ, Kang HS. Study on self 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84; 14 (2)
15. Han SJ.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0;6 (1):132-146.
16. Yeun EJ, Kwon YM, A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17. Kim MH.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Graduate School Kyeonghee University, 2008.
18. Lee MS, Ha YO.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2):8738-8744.
19. Lim KM, Jo EJ.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4):556-566.
20. Ko YJ, Kim IK.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62-71.